

“1980년 5·18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

문재인 대통령, 독일 일간지 'FAZ' 기고문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5·18 광주의 진실' 알리고 밝히는 것
광주형 일자리가 경제민주화·포용국가의 노동돌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레마이네차이퉁'(FAZ) 기고문에서 광주 정신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포용국가의 노동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이며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고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80년 봄,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신군부는 학살을 자행했고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 진입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지만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다고 했다. 첫 번째 자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라며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고 사

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자각에 대해서는 “국가의 폭력 앞에서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라며 “항쟁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됐다”고 밝혔다.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권력에 대항하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고,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한 개의 의무에 대해서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에 가해진 국가 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문 대통령 자신도 변호사로 일하며 광주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바치고 끊임없이 광주를 되살려낸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찾아왔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제1공영방송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힌츠퍼터 기자가 ‘외로운 광주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광주형 일자리”도 강조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화협의의 모범을 만들었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되었듯,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으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고 포용국가의 노동돌이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민은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한 권한을 관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 지켜냈다.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등과 관련, 기고문의 마지막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러하듯, 고대나 남긴 경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라고 적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가져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탄력

명사십리해수욕장 친환경 국제 인증·국가공모사업 선정

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해양치유산업이 해수욕장의 친환경 국제인증과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이 최근 덴마크 환경교육재단(FEE)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FEE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단체로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80개국이 가입돼 있다. 블루플래그는 FEE가 친환경 해수욕장 및 마리나에게만 주는 국제인증으로 완도는 국내 최초이자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질, 환경관리, 환경교육, 안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00여 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공기중 비타민으로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고 부유 세균과 중금속류 함량은 적은 천혜의 환경 및 수질 조건에다 지속적인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 인증을 받게 됐다. 블루플래그 인증 선포식은 오는 7월 5일 명사십리해수욕장 개장식과 함께 가질 예정이다.
완도군은 앞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지난 달 7일 국토부가 공모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돼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2021년까지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론타워인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치유 체험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또 해양기후치유와 해양문화치유 콘텐츠 개발과 해양치유 스마트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국내를 대표하는 해양치유인재를 개발하고 해조류 등 바다자원은 물론 해수와 기후를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의료산업으로 완도군은 민선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한 해 8월부터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운영한 노르딕워킹과 해변 요가 등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대박을 터뜨렸다. 겨울까지 12회에 걸쳐 운영한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외국인 등 484명이 참가해 웰니스관광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짧지만 해양치유산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으로 해양치유산업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 기자 ejhung@kwangju.co.kr

현충원·31사단에도
5·18 학살 진압군 ‘호국영웅’ 둔갑 ▶6면



LPGA 메디힐 챔피언십
영암 김세영·순천 이정은 연장철투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6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HOW FUN5’ 행사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HOW FUN5’ 행사는 지난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체험과 공연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미, 북 발사체 ‘미사일 규정’ 신중

폼페이오 “북, 선 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 중 일부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은 여전히 미사일로 규정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8면>
국방부는 지난 5일 북한이 쏜 이번 신형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공식 평가한 뒤 6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분석 결과에 내놓지 않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미공조하에 관련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미가 동

일하게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등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이번에 쏜 신형 발사체를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로 표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우리가족 여행예보 많음

하나팩

중국/마카오/러시아/몽골				일본/대만		동남아		
몽골 1,19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5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3박5일 7/27, 8/5, 8/19, 8/23, 8/27 4/6일 7/31	블라디보스톡 39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3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월,수,목요일 2박4일 금요일 3박5일	마카오 49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3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월,수요일 2박4일 목요일 3박5일	홍콩/마카오 677,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3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화,목요일 2박4일 목요일 3박5일	도쿄 80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4,00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매일 2박3일	오사카 49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항공료 운행일 월,화,목,토요일 3박4일	보라카이 490,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4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수요일 3박5일 토요일 4박6일	세부 887,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4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수 3박5일 토 4박6일(5월 23일-5월 24일) 화 3박5일 토 4박6일(5월 27일-5월 31일)	다낭 56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4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매일 2박3일
상해 32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4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왕산 54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4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월,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장가계 1,09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항공료 운행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계림 1,06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4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대만 604,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4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매일 2박3일	모이타 737,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항공료 운행일 월,수 2박3일 토 3박4일	방콕 43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4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요일 4박 6일	방콕/후이안 790,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항공료 운행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요일 4박 6일	코타키나발루 699,000원~ 한자투어 가이드+기차권+530-선박권+항공료 운행일 목요일 3박 5일, 일요일 4박 6일 #아이랜드트립 #비엠티투어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교통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가여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될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항목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종/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천/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명품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재항공권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건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한일 ■ 여행 유의 ■ 여행 자체 ■ 철수 권고 ■ 여행 금지